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를 위한

주일오후 가정예배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를 위한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2020.03.22. 주일

목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시 29:1)
신앙고백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p>“복의 근원 강림하사(찬송가 28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죠히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기도	인도자(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p>요한일서 4장 18절</p> <p>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p>
설교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삶
가족합심기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2.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삶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동산에 살게 하였을 때 그곳에는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밝음'만이 있었답니다. 에덴동산에 가득찬 '밝음'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밝음이었습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고, 이후 나무 뒤에 숨게 되는데, 그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 두려움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함에 시작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려움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을 때, 마귀가 가져다줍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욕에게 다가간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불안, 공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집어넣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두려움이 가득 차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두려움의 노예로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통해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들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일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 하시고 우리에게 내 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쫓는 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며 두려움의 그림자는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빌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이 생기는 즉시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말씀드리십시오.

마음속에서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두려움을 쫓으려면 소망 속에 살아야 합니다.

(고후 3:12)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소망을 잃은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로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춤추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는 자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기도문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정의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능력의 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